

삼성전기, LED 호조로 1조클럽 가입

2010년 영업이익 1조원 돌파 기대 ... 삼성LED 지분법 평가이익도 기대

삼성전기가 세계 LED(Light Emitting Diode) 시장 호황에 힘입어 영업이익 1조클럽 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010년 삼성그룹 내에서는 삼성전기가 신규로 영업이익 1조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계열사 중 영업이익이 1조원을 웃도는 곳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상장사 2곳과 비상장사인 삼성코닝정밀소재를 포함 3곳 뿐이다.

삼성전기는 영업이익이 1/4분기에 119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4분기 3111억원에 달해 상반기에만 4302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업계에서는 하반기에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LED TV 등의 급속한 수요 증가로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와 LED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윤수 한국증권 연구원은 “삼성전기가 지분 50%를 갖고 있는 삼성LED 영업이익률이 당초 전망치를 웃돌고 있고 다른 사업부도 선전하고 있어 2010년 영업이익이 1조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기에서 떨어져 나온 삼성LED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50대50 합작기업으로 현재 LED 이익의 절반이 삼성전기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집계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04>